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일환



2009년 7월 30일 오전 5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는 초속 15미터 이내의 잔잔한 바람만이 불고 있다.

발사 15분 전. 자동발사버튼의 기능이 작동되고 모두의 긴장이 폭발점에 다다를 무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우주강국 코리아’ 큰 걸음

발사 후 25초 동안 수직 상승하던 나로호는 정남 쪽에서 동쪽으로 10° 가량 방향을 틀어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향한다.

고도가 164km까지 상승하자 위성을 덮개처럼 보호하고 있던 발사체 최상단의

노즈 페어링(nose fairing)이 분리된다. 그리고 연이어 연료를 소진한 하단부가 떨어져 나간다.

‘나로호’ 대한민국 희망 아이콘으로

친 상단부는 호주 인근 바다로 추락한다. # 발사된 지 40분여 후 과학기술위성 2호는 남극을 돌아 지구 반대편에서 고도 300km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공의 첫 신호가 나로우주센터 발사 지휘소에 확인된다.

하지만 단박에 성공할 수 있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첫 발사 성공 확률이

30%를 밑돈다. 우주 강국 미국도 첫 발사에 실패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4수의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우주 사업은 그 어떤 SOC사업보다 불확실한 투자다. 도로·항만은 경제성이 있든 없든 건설하고 나면 남는 것이란다.

하는 위험과 모험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 하더라도 이 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없다는 거시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자칫 한 번의 실패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 책임론과 비난여론에 휘말려 축소된다거나 방향타를 잃는다면 여타 우주 강국에 1백 년 이상 뒤처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래서 올 여름 우리들은 결단해야 한다.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장 무장해야 할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다. 이번 기회에 후손들에 물려줄 개혁의 DNA로 형질변경해보자.

개혁의 DNA를 후손에게

오늘날의 역사는 500여 년 전 산타마리아호 타고 무작정 서쪽으로 가 보았던 서양인들의 무대가 되어있다.

우리도 당장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지 말고 배를 타고가서 거기에 세상의 끝이 있는지 신천지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는 것이다.

세계의 강국들은 우주를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시간을 쏟아부어 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나로호가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의 희망 아이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김병인



한반도의 위기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북핵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난항하고 있고, 남북대화도 교류 협력의 문도 하나하나 닫히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고, 남북 경협은 상정어린 개성 공단 사업도 시작하지 6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있다.

개성공단 폐쇄만은 막아야 한다

도 크다. 이명박정부는 과거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끌려다녔다는 인식과 경험의 진진에 비해 평화, 안보 분야의 진전은 불만족한 수준이며 북한의 변화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비판적 인식의 근거이다.

이런 가운데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은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체제 모방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의미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의 남북경색을 과거 10년간 북한에 끌려다니던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정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의 남북경색을 과거 10년간 북한에 끌려다니던 잘못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조정기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편상'을 수여 합니다. 은편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기고

이상태



“엘리스는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기어한 일은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나무와 사물들이 전혀 그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이었다.

학생 잠재력 깨우는 교육을 바라며

“그것 참 두려워진 나라로군. 이 나라에선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달려야 해.”

항상 뛰어다니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젊은 여왕의 나라에 착안하여, 생물학에서는 생명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모든 정책 아젠다(Agenda)의 핵심이 사람과 지식으로 변화한 지 오래되었다.

교육, 좁게 말해 학교 수업은 재미있는 수업, 꼭 필요한 것을 찾아 가르치는 수업,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워 나가는 수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

자살가족 위로하는 '생명의 전화' 확대 했으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이다. 자살은 유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나 혈연에 대한 애착이 강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총격과 분노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 유가족, 특히 부모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지식 전수에 만족하는 수업이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 현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배양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학업부담 줄여주는 교육정책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자살가족 위로하는 '생명의 전화' 확대 했으면

유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해 주는 '한국생명의 전화'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상담전화는 전국 1588-9191이며, 광주는 (062) 232-9192이다.

시설

‘선진교통 범시민 운동’에 거는 기대

광주가 교통사고와의 전쟁에 나섰다. 수준 높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들어간 것이다.

사실 광주의 교통문화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발표한 ‘2008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6.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568.8건으로 전

국 1위다. 이쯤 되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시라기보다는 교통사고 중심도시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교통사고 전국최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잘못된 운전습관과 안전불감증을 씻어내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568.8건으로 전

정부 서민대책 전시성 행정 안 돼야

정부가 어제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다양한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서민대책은 뉘는 감이 없지 않지 실제 현장의 온기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생활은 파산 일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소득 계층에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서민대책은 뉘는 감이 없지 않지 실제 현장의 온기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생활은 파산 일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無等鼓

정치권과 노동계가 6월 임시국회의 쟁점현안인 비정규직 협상을 시도했으나, 협상 마지못한 지난달 28일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을 말한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을 말한다.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이 이에 속한

비정규직 논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긴 했다. 그러나 뒤늦게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기간을 간과한 듯하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열릴 바서는 비정규직들이 2년간 고생할 경우 '불행행복식'으로 비취질 수 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을 말한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을 말한다.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계약직 등이 이에 속한

비정규직 논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긴 했다. 그러나 뒤늦게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기간을 간과한 듯하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